

미국 흑인의 희망과 꿈, 바락 오바마 《Hopes and Dream》

글_이경아(번역가)

세계가 말 그대로 지구촌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나 총리가 누가 될지도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올해 선거판은 우리나라도 미국도 이야깃거리가 차고 넘치는 것 같다. 특히 프랑스에서 시작한 성대결 구도는 약속이라도 한 듯 미국과 우리나라에서도 재연되고 있으니 말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미국 대선의 한복판에는 '바락 오바마'가 있다. 케냐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오바마는 한때 코카인까지 손을 대는 문제아였으나 인권변호사로 성공해 미국 흑인 최초로 상원의원에 당선된 45살의 젊은 정치가이다. 정치에 아무리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짧은 약력만 봐도 바락 오바마라가 과연 어떤 사람일지 궁금해지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 책 《Hopes and Dream》(Black Dog & Leventhal Publishers, Inc.)의 일독을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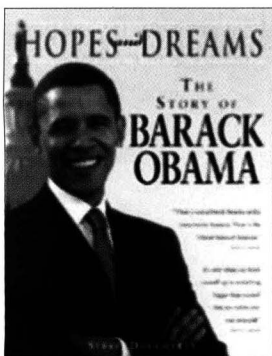
사실 이 책은 '일독' (一讀)보다는 '일견' (一見)을 권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의 8할은 사진이니 말이다. 책의 구성은 간단하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의 인생을 큰 줄기 삼아 그와 가족들, 친구들,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의 코멘트들이 함께 실려 있다. 그리고 사진을 곁들였다. 글로써 다 전하지 못하는 마음을 사진으로 전하고 싶었던 듯 이 책에 실린 사진들은 재미있고 다양하다. 아프리카를 방문하거나 으리으리한 홀에서 연설을 하는 모습처럼 공식적인 활동을 담은 사진도 있고 수영복을 입고 '햇살' 을 드

러낸 살짝 민망한 사진, 가족과 함께 하는 모습이나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평범한 가정의 모습을 담은 것도 있다. 조지 클루니, 톰 크루즈와 같은 유명인들과 함께 한 사진도 함께 실려 있다. 사진과 함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오바마의 어록이다. 페이지마다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그의 연설이나 코멘트를 보면 마약까지 손을 대는 인생 '막장' 을 체험한 문제아가 상원의원으로 성공하기까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왔는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정치적 성향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짐작케 해 주는 말도 함께 실려 있다.

아프리카의 스와힐리어로 '바락' (Barack)은 신이 내린 은총 혹은 축복이라는 뜻이며 히브리 어로는 '한 줄기 번개' 를 의미한다고 한다. 미국인들에게 바락 오바마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신에 내린 축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요란한 소리와 함께 하늘을 반으로 '찍' 가르는 순간 사라져버릴 번개가 될 것인가. 오바마 의원이 어떤 존재로 남든 그가 미국 사회에 한 줄기 신선한 바람을 몰고 온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 바람이 토네이도가 되어 미국 사회에 뿌리 깊은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을 시원하게 날려버릴 밑거름이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 책이 오바마 의원을 100% 공정한 시선으로 바라본 책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반대자들의 코멘트도 함께 실었다지만 그를 바라보는 시선의 균형을 맞추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락 오바마라는 사람에 대한 독자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기에는 손색이 없을 것 같다. 그의 성공 신화에서 영감을 얻거나 동기를 부여받는다면 그것은 덤이다. **이경아**

원 제_《Hopes and Dream》
출판사_Black Dog & Leventhal Publishers



English

추리소설의 아버지, 비도크 《비도크 회고록》

글_성귀수 (번역가, 시인)

자기가 쓴 글보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 때문에, 그 인생 자체보다 그로부터 영감을 얻어 쓴 다른 사람들의 글로 인해 더더욱 유명해진 사람이 있다. 이름하여 외젠 프랑수아 비도크(1775~1857). 대단히 각별한 사이였던 발자크를 비롯해, 외젠 쉬, 알렉상드르 뒤마, 빅토르 위고, 나아가 바다 건너 에드거 앨런 포까지 당대를 함께 호흡한 쟁쟁한 작가들이 바로 이 비도크라는 인물을, 그 기구한 인생 역정을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작품 속에 끌어들이 각자 말하고자 하는 무언가를 훌륭히 드러내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다. 비도크라는 인물로 유발되는 영감의 종류가 하나의 문학 장르로 구체화되는가 싶더니, 그 후 오늘날까지 소위 추리소설(roman policier)로 일컬어지는 모든 작품세계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의 아우라를 경험하고 있다.

요즘은 알 만한 사람 다 아는 얘기지만, 《인간희극》을 활개치고 돌아다니는 보트랭이란 인물, 《파리의 불가사의》를 범람하는 온갖 은밀하면서도 거친 어휘들, 《파리의 모히칸족》에서 활약하는 자칼, 그리고 저 유명한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을 넘어, 심지어 《모르그가의 살인》을 해결하는 뒤펡의 모습과 《무슈 르코크》의 르코크 탐정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하나를 ‘조각 맞추기’ 하다보면, 우리는 어느새 비도크라는 실존인물을 만나는 셈이 된다.

1828년, 수기를 한번 써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발자크의 권유로 세상에 빛을 보게 된 이 책은 사실상 그 이전 어디에서도 존재한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인물의 탄생 선언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만큼 비도크의 캐릭터와 삶의 방식이 가져다준 충격은 전례를 찾을 수 없는 것이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른바 ‘편력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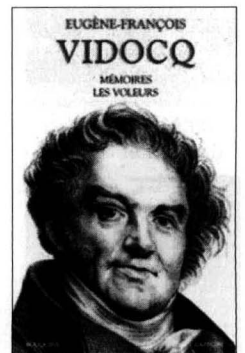
(騎士)’라는 일종의 인물 유형이 있어 세상을 떠돌며 온갖 모험에 휘말리는 정의감 넘치는 풍운아들을 대변해온 게 사실이지만, 비도크는 그와는 또 달랐다.

그의 삶에는 선과 악의 갈등이 훨씬 더 첨예할 뿐 아니라, 한데 뒤엉키면서 어느 한쪽도 일방적으로 주도할 수 없는 궤적이 어지러이 드러난다. 타고난 기질 상 어쩔 수 없이 범죄의 늪에 빠져든 인생이 그 시슬을 꿰고자 각고의 노력을 다하지만, 이제는 사회가 오히려 악의 편에 서서 그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진다.

악의 바닥을 누비다가 그 악을 척결하는 선의 선봉에 서기까지, 그러다 그 선의 한계에 좌절해 다시 금 악의 늪에서 허덕이기까지, 한 인간의 삶이라곤 믿어지지 않을 만큼 파란만장하다. 당연히 아슬아슬한 고비와 굴곡이 쉽 없이 펼쳐질 터, 그때마다 변장과 도주, 기만과 급습으로 활로를 트는 모습 또한 신출귀몰 그 자체라 할 것이다.

당시 수많은 아류, 거짓 회고록이 꼬리를 물 만큼 유명했던 이 희대의 문헌을 나는 뒤펡전집을 파던 5년 전에 구해 가지고 있었다. 괴도신사 뒤펡이야말로 비도크의 또 다른 분신이나 다름없으니... 그때와 비교해보면, 정말이지 여러 자료와 경로를 통해 비도크라는 이름을 접할 수 있는 오늘이다. 그런데도 아직 이 책이 번역되어 나뉜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 다들 아는 것 같지만, 아직은 ‘말로만 듣던’ 혹은 ‘전설적인’ 등등의 수식어가 뿔어대는 안개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어느 출판사가 그 안개를 시원스레 걷어줄지 궁금하다. **한글**

원 제_《Memoires de VIDOCQ》
저 자_Eugene-Francois VIDOCQ
출 판 사_Robert Laffont



French

역사의 흐름을 바꾼 한 사람의 용기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사람》

글_홍순철 (북코스모스 에이전시 대표)

1989년 11월 9일, 세계 역사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다. 28년간 독일 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이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1990년 독일 통일로 이어졌고 1945년부터 계속되어왔던 냉전(Cold War)의 종식을 의미했다. 아름다운 도시를 이념으로 갈라놓았던 대표적인 냉전의 상징, 베를린 장벽. 150km 넘게 늘어섰던 그토록 견고해보이던 베를린 장벽이 어떻게 것처럼 갑작스럽게 붕괴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은 당시 미국과 소련의 화해 분위기와 동독 주민들의 자유에 대한 열망이 자연스럽게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맨 처음 그것을 시도한 누군가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베를린 장벽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 용기 있는 누군가의 선택. 그 선택 하나가 자유를 찾아 장벽을 넘어려 했던 천만 명의 혈혼이 남아있는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단초를 제공했던 것이다. 이 책은 바로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촉발시킨 한 용기 있는 남자의 일생을 소설적 구성을 더해 색다른 시각으로 조명해보고 있다.

1943년생으로 전형적인 동독 가정에서 태어나 스스로의 선택으로 공산주의자가 된 하랄드 예거(Harald Jäger). 그는 누구보다도 국가관이 투철해 1961년 3년의 의무복무를 위해 국경수비대에 지원했고, 곧 동독정보부서로 발령받았다. 그는 베를린 국경 지역에서 출입국 심사를 담당하면서, 서독 주민들을 접촉하고 설득하여 동독으로 전향시키는 비밀 프

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했다. 동독 정부는 그의 공로를 인정해 동독 최고시민의 영예까지 안겨주었다. 그야말로 하랄드 예거는 이념으로 뿔뿔 뭉쳐 베를린 장벽을 굳건하게 지키는 공산주의의 자랑이었다.

1989년 11월 9일, 하랄드 예거는 평소와 다름없이 국경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장벽 주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시간이 흐르자 동독 주민들이 점점 더 많이 몰려들었다. 그리고 그동안 단혀져 있던 장벽의 문을 열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쩔 줄 몰라하며 상부에 보고했지만, 상부에서는 절대 문을 열지 말고 원칙을 고수하라고 반복적으로 지시할 뿐이었다.

하지만 하랄드 예거는 자신의 가슴속에서 끓고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더 이상 자유를 열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의지로 그동안 굳게 닫혀 있던 장벽의 문을 열기로 결정했다. 동독 비밀요원으로서 50년 가까이 그의 삶을 지배했던 명령과 복종의 이데올로기를 깨고 장벽의 문을 열어젖힌 그의 결정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죽음을 무릅쓴 결정을 하게 했을까?

이 책은 색다른 시각으로 한 인물의 생애를 조명하고, 역사적 사건의 이면에 가려져있던 한 인간의 용기를 부각시키고 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역사의 큰 흐름을 바꾼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추천**

원 제_(Der Mann, der die Mauer öffnete)
저 자_Gerhard Haase Hindenberg
출 판 사_ Heyne



Germany

‘지적 유희’가 무엇인지 만끽하게 해주는 책 《세계정복은 가능한가?》

글_윤덕주 (엔북 대표 · 번역가)

“근데, 이 가고일이라는 비밀결사는 왜 세계정복 따위 하려는 걸까요?”

안노 히데유키 감독은 한숨을 지었다.

“귀찮게 그럴 게 아니라 고도의 과학력을 가지고 자기네들이나 즐겁게 살면 될 텐데...” (중략)

정말 그렇다. 왜 악의 제국은 ‘세계정복’ 따위를 하고 싶어 할까?

‘세계정복’ 처럼 나쁜 짓을 꾸미니까 ‘악의 제국’ 인 걸까?

궁극의 악 = 세계정복이란 말인가?

내 머리는 복잡해지고 말았습니다.

‘세계정복이란 게 정말 가능할까?’

‘악의 제국의 수단과 목적은 무엇일까?’

‘세계정복이 나쁜 일일까? 애초에 ‘악’이란 무엇일까?’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가끔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후략)

한때, 절대 악당들이 세계 정복을 노리는 시절이 있었다. 어린이 만화뿐 아니라 <007 시리즈> 같은 어른 영화에서도 거대한 악의 집단이라면 당연히 세계정복이 목표였다. 그러한 악당 이미지는 냉전시대에 인류 스스로가 만들어낸 위기감 속에서 국가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권력자들의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것이라거나 제국주의의 확장이라는 식으로 분석을 시도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세계정복은 가능한가?》를 쓴 작가는 그런 과거형 분석은 따분하게 여길 사람이다. 아마 애니메이션 팬이라면 앞에 옮겨 놓은 머리글만 보고도 짐작할 수 있었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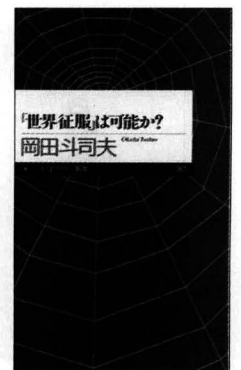
저자는 안노 감독과 <신비한 바다의 나디아>를 만든 메이저 게임 · 애니메이션 제작회사 가이낙스의 창업주 오카다 도시오이다. 지금은 일찌감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대학에서 강의를 하거나 책을 쓰

고 있지만, 오카다라면 15년 동안 간간이 세계정복에 대해 궁리했을 만하다. 일본 최고의 ‘오타쿠’라고 불리는 사람이니까. 불행인지 다행인지, 작가가 세계정복에 나서지 못하고 궁리만 거듭하는 동안 세월이 흐르고 흘러 세계정복이란 단어는 개구리형 외계인들 (혹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덧붙이자면 아동 명랑만화 <개구리 중사 케로로> 말이다)이나 들고 나오는 조롱거리 캐치프레이즈가 되고 말았지만, 그래도 책의 내용은 사뭇 진지하다.

전반부는 유명 애니메이션의 악당들을 예로 들어 세계정복의 목적, 동기, 수단을 분석한다. 후반부는 알렉산더 대왕 등 역사적 인물들이 실제로 시도했던 각종 세계정복을 분석, 고찰하는데 결코 ‘만화 수준’이 아니다. 윤리 · 혁명론 · 조직론 · 지도자론 등 인문지식을 폭넓게 끌어들여 거기에 애니메이션 사례를 엮은 내용은 논리적이면서 유머러스해서 ‘지적 유희’가 무엇인지 만끽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 책, 죽을 고생만 하지 남들은 잘 알아주지도 않는 정의의 사도보다 일사불란하게 명령에 따르는 수많은 부하를 거느린 악당이 더 부러워진, ‘철 들어버린’ 과거의 어린이가 통근 전철에서 읽으면 좋지 않을까? 혹, 공주가 꿈이었지 세계정복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여자 분이라도, 야근으로 피곤한 판국에 삼겹살집 마늘과 소주 냄새 풍기는 아저씨와 붙어서 퇴근할 수밖에 없는 만원 버스 안에서 ‘이 인간들과 세상을 짝 쓸어버리고 싶다!’는 분노를 느낀 적이 있다면 이 책이 즐거울지 모르겠다. **한글**

원 제_《世界征服は可能か?》
저_오카다 도시오(岡田 斗司夫)
출판사_지쿠마쇼보(筑摩書房)



Japanese